

## 10억원 이상 축제 98.7% 급증에도 지역주민 외면, 방문 소비 정체

- 19년 대비 25년 지역축제는 37.3% 증가했으나, 24년 지역 주민 참여는 -8.6% 감소
- 지역축제 원가 규모가 17.3% 증가, 25년 10억원 이상 축제 98.7% 급증
- 외부 방문객은 평균 21.1% 증가에도 축제 기간 일 평균 소비는 1.5%p 확대에 그쳐
- 축제 증가에 따른 외부 방문객 유인 성과에도 관광 소비·주민 참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 공공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축제와 여러 대안적 사업을 비교하여 재정 배분 효율성 제고

작성 : 송진호 객원연구원

## 2025년 지역축제 현황 및 성과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제언

### 요 약

- 19년 대비 25년 지역축제는 1,214개로 19년 대비 37.3% 증가했으며, 24년 결산기준 3~5억원 이상 지역축제 원가는 17.3% 증가함.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 대형 축제가 98.7% 급증해 질적 전환에 대한 시도로 해석됨
- 다만, 지역축제 외부 방문객은 21.1% 증가에도 축제 기간 외부 방문객의 일 평균 지역 소비 증가율은 1.5%p, 1인당 소비액은 0.0% 증가에 그쳐 지역 소비를 유인하는 효과는 미비함. 또한, 지역주민의 축제 참가율은 -8.6%p 감소함
- 종합하면, 지역축제의 개수와 원가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주민참여와 방문 소비라는 성과는 정체되어 투입 대비 효과가 약해지는 구조가 확인됨. 따라서 축제와 복지, 문화 등의 대안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지출은 정리하고 같은 재원을 더 효율적인 정책으로 재배치해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 밖에도 제도적으로 ① 신규 축제 생애주기 기반 관리제도, ② 지역축제의 통계·평가 기반 구축, ③ 페스티벌-이벤트 개념 재정의 등의 보완이 요구됨

## 1. 분석 개요

### 1.1 문제 제기 및 배경

#### ○ 지역축제 급증 속 공공재원 의존·전시성 논란으로 체질 개선에 대한 지적 반복

- 지역축제는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결합해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지역축제 70% 이상이 관(官) 조직에서 운영되고 재원의 93%가 국비 및 지방비로 구성된 점에서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의견이 지적되고 있음<sup>1)</sup>
-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더라도 행사·축제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시설물·구조물 등 임시적·일시적으로 설치·구축하는 각종 경장경비 비중이 높아 ‘전시성’, ‘낭비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상당수가 경쟁력 없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24년 분석을 갱신<sup>2)</sup>하면서 광역별 지역축제 현황과 유발되는 성과를 비교하고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언함

### 1.2 분석 범위 및 절차

- (분석 범위) 축제 데이터는 한국관광공사의 지역축제 정보<sup>3)</sup> 및 관광데이터랩 문화관광축제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자료, 재정365 행사·축제 원가 정보를 재구성함
- (분석 절차) 19년 대비 25년 기준, 첫째. 현행 지역축제 개최 규모와 동향을 분석함. 둘째. 지역축제 성과로 방문객과 지역 소비 추이를 비교해 유발되는 편익을 분석함

### 1.3 분석 한계점 및 유의사항

- 첫째. 지역축제 동향 자료인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 개최 계획」은 지자체에 따라 입력하지 않거나, 연초 계획으로 실제 축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 둘째. 지역축제 방문객 및 소비는 전체 축제 데이터 수집 한계로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문화관광축제’를 표본으로 함. 또한, 축제 방문객과 소비액 원시 데이터는 내국인(KT, 신한카드)과 외국인(SKT, 해외 발행 카드)의 추계방식이 일부 통신사와 카드사의 데이터에 한정되어 경향성 중심으로의 비교가 필요함
- 셋째. 지역축제 종합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다수 기관 자료를 재구성하여 전반적인 추세와 경향성을 살펴보려는 취지인 만큼 절대값으로 해석하는 것엔 유의가 필요함

## 2. 광역별 지역축제 현황분석

### 2.1 광역별 축제 개최 현황

#### ○ 2025년 지역축제는 1,214개로 19년 대비 강원·경기·경남 증가, 서울·인천 감소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5.12).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의원 검토보고서  
2) 나라살림연구소(2024). 2024년 지역축제 현황 및 성과분석에 따른 성과관리 제도개선 방향성 제언, <https://narasallim.net/report/828>  
3) 한국관광공사의 지역축제 기준은 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지역축제이며, 문화관광축제를 포함함. 단, 특정 계층만 참여하거나, 순수 예술 및 단순 주민행사, 종합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됨

- 전국 17개 광역별 지역축제의 개수를 재구성한 결과, 2019년 884개, 2025년 1,214개로 2019년 대비 3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기간 내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증가한 광역은 강원으로 55개(80.9%)이며, 이어 경기도가 50개(47.6%), 경남 43개(65.2%) 순임. 반대로 감소한 광역은 서울 -22개(-23.7%), 인천 -4개(-12.5%)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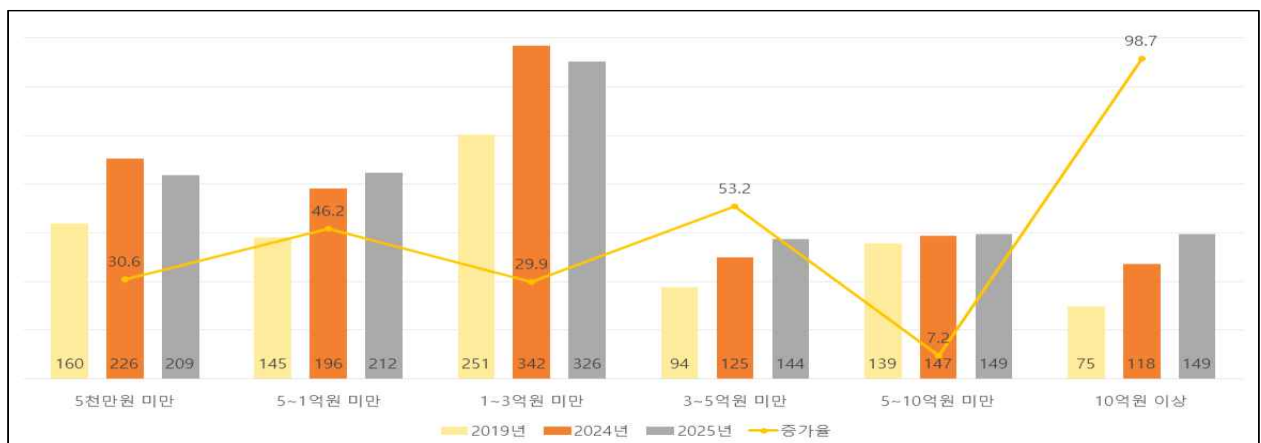
<표 3> 광역별 지역축제 증가율 비교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9년	93	44	25	32	8	15	20	2	105
2025년	71	57	38	28	19	22	34	7	155
증가율(%)	-23.7	29.5	52.0	-12.5	137.5	46.7	70.0	250.0	47.6
개수	-22	13	13	-4	11	7	14	5	5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9년	68	49	92	50	107	68	66	40	884
2025년	123	60	101	89	143	101	109	57	1,214
증가율(%)	80.9	22.4	9.8	78.0	33.6	48.5	65.2	42.5	37.3
개수	55	11	9	39	36	33	43	17	330

출처 :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 개최 계획(2019-2025)」, 재구성

○ 1~3억원 규모의 지역축제가 보편적이거나 최근 10억 이상 축제 급증(98.7%) 경향 뚜렷

- 2019년 대비 2025년 축제 예산별 증가율은 5천만원 미만 축제 30.6%, 5~1억원 미만 46.2%, 1~3억원 미만 29.9%, 3~5억원 미만 53.2%, 5~10억원 미만 7.2%, 10억원 이상 축제는 98.7% 증가해 10억원 이상 대형 축제 증가율이 뚜렷함<sup>4)</sup>
- 2025년 지역축제 중 가장 많은 유형은 1~3억원 규모로 326개(26.9%)를 차지하고 전체 3억원 이상 축제는 421개(36.4%)임



[그림 2] 연도별 예산 규모에 따른 축제 증가율(19-25년 비교)

출처 : 한국관광공사 「지역축제 개최 계획(2019, 2024, 2025)」, 재구성

4) 한국관광공사 제공 자료에서 예산이 파악되지 않는 축제는 분석에서 제외함

## 2.2 광역별 행사·축제경비 현황 세부 분석

○ 행사축제 원가 공개 대상인 3~5억원 이상 지역축제 예산 규모는 19년 대비 17.3% 증가

- 축제 원가 증가가 큰 지역은 인천 161.5%, 대전 125.3%, 충남 123.8%, 서울 85.3%, 울산 81.4%, 경기 32.1% 등으로 나타남
- 반면 원가 감소 지역은 세종 62.0%, 부산 33.5%, 제주 19.0%, 강원 12.5%, 충북 10.1% 등으로 나타났고 경북은 거의 변동이 없음(0.0%)

<표 4> 광역별 행사축제원가회계 정보 증감 비교(결산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9년		2024년		증가액 (a-b)	증가율 (a/b*100)
	축제 개수	행사축제 원가(b)	축제 개수	행사축제 원가(a)		
서울	37	31,260	59	57,924	26,664	85.3
부산	29	47,901	27	31,860	-16,041	-33.5
대구	22	20,457	18	18,764	-1,693	-8.3
인천	6	4,301	15	11,248	6,947	161.5
광주	8	9,121	10	8,499	-622	-6.8
대전	9	6,010	11	13,541	7,531	125.3
울산	12	9,311	15	16,890	7,579	81.4
세종	4	3,022	1	1,148	-1,874	-62.0
경기	68	56,199	81	74,214	18,015	32.1
강원	67	61,425	59	53,753	-7,672	-12.5
충북	28	41,589	42	37,399	-4,190	-10.1
충남	23	28,170	52	63,056	34,886	123.8
전북	33	32,977	46	40,885	7,908	24.0
전남	59	47,974	62	46,234	-1,740	-3.6
경북	63	50,779	70	50,801	22.0	0.0
경남	45	36,298	59	49,241	12,943	35.7
제주	10	12,566	8	10,183	-2,383	-19.0
<b>합계</b>	<b>523</b>	<b>499,360</b>	<b>635</b>	<b>585,640</b>	<b>86,280</b>	<b>17.3</b>

출처 : 지방재정365,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2019-2024)」, 결산기준, 재구성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자치단체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을 의미하며, 집행액 기준 광역자치단체 5억, 기초자치단체 3억원 이상 행사·축제가 공개 대상임

## 3. 지역축제 주민 참가율 및 소비 지출 분석

### 3.1 광역별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참가율

○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평균 참가율 2019년 45.0%에서 2024년 36.4%로 -8.6%p 감소

- 광역별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참가 경험’ 응답을 재구성한 결과 지역주민 참여가 감소한 광역은 14개이며, 대표적으로 대구 -17.2%p, 부산 -17.0%p, 경북 -16.2%p 순으로

로 집계됨. 반면, 전남 1.3%, 충남 2.7%, 대전 8.0%로 증가함

-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과 비교 시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남 등은 감소, 서울, 부산, 울산 등은 상승해 광역별 차이가 있음

<표 5> 광역별 지역축제 참가율 비교 [단위 : %, %p]

구분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참가율			
	2019년(b)	2023년	2024년(a)	차이 (c=a-b)
서울	30.2	16.8	23.5	-6.7
부산	41.3	22.2	24.3	-17.0
대구	37.2	35.0	20.0	-17.2
인천	28.7	24.9	18.0	-10.7
광주	47.8	39.1	34.6	-13.2
대전	35.6	63.3	43.6	8.0
울산	42.6	15.4	27.8	-14.8
세종	55.6	55.3	52.9	-2.7
경기	30.9	16.1	19.0	-11.9
강원	38.7	35.7	28.9	-9.8
충북	56.6	47.0	46.9	-9.7
충남	55.7	63.2	58.4	2.7
전북	61.3	27.5	46.6	-14.7
전남	50.0	53.4	51.3	1.3
경북	44.3	31.8	28.1	-16.2
경남	56.7	35.7	47.8	-8.9
제주	51.8	18.9	47.9	-3.9
<b>평균</b>	<b>45.0</b>	<b>35.4</b>	<b>36.4</b>	<b>-8.6</b>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19-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재구성

\*조사 기간은 18년 6월~19년 6월, 22년 6월~23년 6월, 23년 6월~24년 6월로 단년도 자료가 아님을 유의

### 3.2 광역별 지역축제 외부 방문객 및 경제 효과분석

- 축제 기간이 같은 달 평시보다 외부 방문객 소비는 1.5%p에 그쳐 소비 유인 효과는 미비
  - 문화관광축제 개최지(시군구)를 방문한 외부 방문객(외국인 포함)의 카드 소비액을 B 소비액(축제 개최 월-일 평균)과 A소비액(축제 기간-일 평균)의 증가율 차이를 비교함
  - 2019년 대비 2025년 전체 축제 개최 월의 일 평균 소비액은 1,107억원에서 1,323억원, 축제 기간 일 평균 소비액은 1,265억원에서 1,532억원으로 평시보다 약 14.2%~15.7% 소비가 증가하지만, 2019년과 비교해 추가 소비 유인은 1.5%p 상승한 수준임
  - 이에 경남(-21.5%p)·광주(-12.0%p)·강원(-5.8%p)·대구(-4.4%p) 등은 축제 기간 일 평균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해 축제 개최의 유인 효과는 적은 편
  - 반면, 인천(16.8%p)·경기(9.0%p)·대전·울산(5.5%p) 등은 축제 기간 일 평균 소비가 증가해 축제 개최에 따른 소비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6> 광역별 외부 방문객(외국인 포함) 일 평균 소비액 증가율 비교 [단위 : 천원, %p]

구분		2019년			2025년			증가율 차이 (%p)
광역	개수	개최 월 일 평균 소비액(b)*	축제 기간 일 평균 소비액(a)**	소비액 증가율 (a/b*100)	개최 월 일 평균 소비액(d)	축제 기간 일 평균 소비액(c)	소비액 증가율 (c/d*100)	
경남	7	5,195,136	5,643,053	8.6	6,028,606	5,253,366	-12.9	-21.5
광주	3	5,004,920	6,716,715	34.2	8,437,083	10,307,009	22.2	-12.0
강원	12	10,406,495	12,184,948	17.1	12,682,963	14,115,139	11.3	-5.8
대구	4	8,093,840	8,554,634	5.7	8,727,393	8,840,901	1.3	-4.4
제주	2	10,779,588	10,950,720	1.6	10,525,202	10,365,619	-1.5	-3.1
경북	8	3,401,817	4,323,840	27.1	4,201,013	5,216,552	24.2	-2.9
전남	9	2,804,498	4,127,568	47.2	3,369,983	4,902,472	45.5	-1.7
부산	4	3,796,877	4,355,439	14.7	4,574,117	5,205,076	13.8	-0.9
충북	4	2,101,673	2,223,282	5.8	2,535,663	2,690,668	6.1	0.3
충남	8	7,115,576	8,967,391	26.0	8,514,867	10,762,997	26.4	0.4
서울	2	9,956,254	11,820,038	18.7	11,603,327	13,983,547	20.5	1.8
전북	9	3,274,508	4,347,697	32.8	4,447,809	6,105,321	37.3	4.5
세종	1	1,263,508	1,240,169	-1.8	1,457,700	1,505,865	3.3	5.2
대전	2	4,137,926	4,783,888	15.6	6,031,501	7,305,582	21.1	5.5
울산	4	5,608,096	6,072,065	8.3	6,241,633	7,098,958	13.7	5.5
경기	7	19,857,454	21,461,071	8.1	23,576,702	27,592,100	17.0	9.0
인천	3	7,934,021	8,729,584	10.0	9,393,560	11,910,450	26.8	16.8
<b>합계</b>	<b>89</b>	<b>110,732,187</b>	<b>126,502,103</b>	<b>14.2</b>	<b>132,349,121</b>	<b>153,161,620</b>	<b>15.7</b>	<b>1.5</b>

출처 : 한국관광데이터랩, 「행사/축제 DIY 맞춤 분석-시군구 소비액 추이」, 재구성

\* 축제 개최 월 총 소비액÷해당 월 일수의 값, 개최 월이 31일까지인 경우 데이터 문제로 30일로 통일함

\*\* 축제 개최 기간 총 소비액÷축제 일수의 값

\*\*\* 2019년 미개최 축제 7건은 2018년, 2025년 미개최 축제 2건은 2024년 데이터를 반영함. 한국관광데이터랩 '행사/축제 DIY 맞춤 분석'은 축제 기간 개최지(시군구) 전체의 소비액을 공개하고 있으나, 개최 장소 및 기간 차이의 변화를 고려해 '일 평균 증가율(%)'로 분석함

\*\*\*\* 해당하는 축제 총 개최 기간은 2019년 282일, 2025년은 306일로 집계됨

○ 지역축제 외부 방문객은 21.1% 증가, 1인당 지역 소비는 0.0%에 그쳐 2019년과 유사

- 문화관광축제 기간 개최지(행정동)를 방문한 외부 방문객(외국인 포함) 규모와 축제 기간 외부 방문객(외국인 포함)의 1인당 지역 소비액을 산출·비교함
- 첫째, 전국 축제 외부 방문객은 2019년 7,878,097명에서 2025년 9,541,199명으로 21.1% 증가. 특히, 경남(63.3%)·경기(58.0%)·전북(48.7%)·광주(44.3%)·세종(41.7%)·부산(40.7%) 등이 높고 강원(-12.5%)·제주(-3.7%)·대구(-2.6%)는 감소함

- 둘째. 전국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액 평균은 16,057원에서 16,053원으로 정체됨. 지역별은 강원(32.3%)·대전(25.3%)·인천(14.8%)·울산(11.9%) 등이 증가, 경남(-43.0%)·경기(-18.6%)·부산(-15.0%)·세종(-14.3%)·충남(-11.2%)·서울(-9.9%) 등은 감소함

<표 7> 지역별 외부 방문객 규모 및 1인당 소비액 비교 [단위 : 명, 원, %]

구분		광역별 평균 외부 방문객 및 1인당 소비액 추이					
		평균 외부 방문객			축제 기간 방문객 1인당 소비액*		
광역	개수	2019년	2025년	증가율	2019년	2025년	증가율
서울	2	120,724	158,476	31.3	97,910	88,238	-9.9
부산	4	254,300	357,688	40.7	17,127	14,552	-15.0
대구	4	546,074	531,617	-2.6	15,666	16,630	6.2
인천	3	249,851	296,987	18.9	34,939	40,104	14.8
광주	3	393,430	567,667	44.3	17,072	18,157	6.4
대전	2	149,721	182,518	21.9	31,952	40,027	25.3
울산	4	195,971	204,699	4.5	30,985	34,680	11.9
세종	1	56,106	79,478	41.7	22,104	18,947	-14.3
경기	7	508,497	803,188	58.0	42,205	34,353	-18.6
강원	12	1,485,515	1,300,356	-12.5	8,203	10,855	32.3
충북	4	291,017	316,160	8.6	7,640	8,510	11.4
충남	8	870,315	1,175,619	35.1	10,304	9,155	-11.2
전북	9	538,067	800,023	48.7	8,080	7,631	-5.6
전남	9	1,007,515	1,105,528	9.7	4,097	4,435	8.2
경북	8	682,867	845,001	23.7	6,332	6,173	-2.5
경남	7	459,076	749,726	63.3	12,292	7,007	-43.0
제주	2	69,051	66,468	-3.7	158,589	155,949	-1.7
<b>합계</b>	<b>89</b>	<b>7,878,097</b>	<b>9,541,199</b>	<b>21.1</b>	<b>16,057</b>	<b>16,053</b>	<b>0.0</b>

출처 : 한국관광데이터랩, 「행사/축제 DIY 맞춤 분석」, 축제/행사기간 행정동 방문자 비교, 재구성

\* 축제 개최 기간 총 소비액÷외지인 방문자의 값, 소비액은 표-6 참고

\*\* 2019년 미개최 축제 7건은 2018년, 2025년 미개최 축제 2건은 2024년 데이터를 반영함

### 3.3 광역별 지역축제 현황 및 성과분석 소결 및 세분화

#### ○ 축제 증가에 따른 외부 방문객 증가에도 주민참여·지역 소비는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남

- 2019년보다 지역축제 규모는 37.3%, 축제 원가는 1.73% 증가했으나, 지역주민의 참가율은 평균 -8.6%p 감소함
- 외부 방문객 규모는 21.1% 증가했으나, 축제 기간 일 평균 소비는 1.5%p, 방문객 1인당 소비액은 0.0%에 그쳐, 축제 개최가 주는 지역 소비 유인 효과는 미비함

<표 8> 광역별 지역축제 분석 결과 종합 [단위 : %, %p]

구분	①지역축제 증가율	②축제원가 증가율	③지역주민 축제 참가율	④외부 방문객 증가율	⑤일 평균 축제 소비 증가율	⑥1인당 소비액 증가율
	%	%	%p	%	%p	%
서울	-23.7	85.3	-6.7	31.3	1.8	-9.9
부산	29.5	-33.5	-17.0	40.7	-0.9	-15.0
대구	52.0	-8.3	-17.2	-2.6	-4.4	6.2
인천	-12.5	161.5	-10.7	18.9	16.8	14.8
광주	137.5	-6.8	-13.2	44.3	-12.0	6.4
대전	46.7	125.3	8.0	21.9	5.5	25.3
울산	70.0	81.4	-14.8	4.5	5.5	11.9
세종	250.0	-62.0	-2.7	41.7	5.2	-14.3
경기	47.6	32.1	-11.9	58.0	9.0	-18.6
강원	80.9	-12.5	-9.8	-12.5	-5.8	32.3
충북	22.4	-10.1	-9.7	8.6	0.3	11.4
충남	9.8	123.8	2.7	35.1	0.4	-11.2
전북	78.0	24.0	-14.7	48.7	4.5	-5.6
전남	33.6	-3.6	1.3	9.7	-1.7	8.2
경북	48.5	0.0	-16.2	23.7	-2.9	-2.5
경남	65.2	35.7	-8.9	63.3	-21.5	-43.0
제주	42.5	-19.0	-3.9	-3.7	-3.1	-1.7
<b>증가율</b>	<b>37.3</b>	<b>17.3</b>	<b>-8.6</b>	<b>21.1</b>	<b>1.5</b>	<b>0.0</b>

\*지역주민축제 참가율, 축제원가 증가율은 19-24년을 비교한 것으로 조사 기간에 차이가 있음

\*\* 축제원가 증가율은 집행액 광역자치단체 5억, 기초자치단체 3억원 이상 행사·축제를 기준으로 함

## 5.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5.1 분석결과 요약

#### ○ 축제 증가에 따른 외부 방문객 유인에도 소비 효과·주민 참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 보통 축제가 늘면 외부 방문객 증가, 지역 소비 확대, 주민참여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나, 분석 결과, 외부 방문객이 21.1% 증가했음에도 일일 소비는 1.5%p, 1인당 소비 역시 0% 수준에 정체되고 지역주민 참가율은 -8.6%p 감소함
- 이는 축제가 외부 방문객 유치엔 일정한 효과가 있으나, 비축제 기간보다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거나, 주민참여로 이어지는 성과는 약하다는 의미로 지역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한계를 드러냄
- 결국, 지역축제는 공공재원 의존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인 만큼 이제는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선심성 지역축제는 억제할 필요가 있음

#### ○ 대형 축제 급증 경향에 재정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자원 활용에 대한 고민 필요

- 우려되는 것은 10억 원 이상 대형 축제의 급증(2019년 대비 98.7%)임. 대형 축제는 한 번 규모가 커지면 인력, 홍보, 시설 등 고정성 비용이 함께 늘고 다음 해에도 유사

한 규모로 유지되는 관행이 되기 쉬워 조정·축소가 어려운 지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기회비용 관점에서 공공 재정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은 채 ‘축제’라는 형식을 무분별하게 늘리면, 같은 재원으로도 소상공인, 예술인, 지역주민에게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다른 방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축제와 대안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지출을 정리하고, 같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방식으로 사업을 재배치하려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5.2 지역축제 개선방향 및 제언

### ○ 첫째. 신규 축제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축제 생애주기’ 평가 제도 구축

- 축제의 무분별한 증가는 지방행정의 점증적인 관행이며, 축제 과밀화와 자원 분산에 따른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축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신규 축제는 ①시범운영-②성과점검-③일몰심사로 단계화하여 시범운영 단계에서 안전·운영체계와 지역자원 활용 등의 최소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 점검 단계는 주민참여, 재방문, 경제효과 등 목적-성과의 정합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예산·규모 확장을 허용하며, 3~5년 주기 일몰심사를 통해 중복·성과부진 축제의 통폐합 및 재설계를 관리한다면 축제 공급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 둘째. 지역축제와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사회조사 등 관계기관의 승인통계만으로는 지역축제에 따른 지자체의 성과와 변화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각종 외부 환경변화와 영향(환경영향, 문화향유, 관광소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양적-질적 성과 기준을 도입하여 지역축제 당위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 셋째. 페스티벌-이벤트의 차이를 고려해 지역축제에 대한 재정의 및 제도보완 필요

- 분석과 별개로 지역축제와 이벤트는 서로 다른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 ‘축제’라는 용어를 기준 없이 사용하면 페스티벌(festival)과 이벤트(event)가 동일시되는 문제를 초래함. 이는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정책적 가치보다 이벤트성 관광정책 일변으로 지역 홍보 수단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 문의 : 송진호 객원연구원 010-4726-1106 (pbucket@naver.com)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1 건영빌딩 5층 / 02-336-0619
- 홈페이지 : narasallim.net